

# 年 3~4% 고금리 적금, 저축銀 상품 일색

시중금리 상승분 적금에도 적용  
우대금리 전년 비 1~2%p 상승  
우대조건 따라 적립방법 선택해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각 은행이 최고 연 3~4%대의 이자를 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분이 적금에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고 우대금리는 각각 4.70%, 4.60%대로 지난해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2017년 11월 30일 인상)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고 우대금리는 말 그대로 최고 우대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는 금리다. 우대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입 전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최고 우대금리(연 4.70%)를 제공하는 우리은행(우리웰치100여행

(저축은행 (정액적립식·자유적립식) 적금상품 순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순위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이자율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이자율
1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3.10%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2.67%
2	솔브레인지축은행	솔솔한정기적금	3.00%	한국투자저축은행	스마트뱅크 정기적금	2.60%
3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	3.00%	한국투자저축은행	e-PLAN 인터넷정기적금	2.60%
4	아주저축은행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	3.00%	금회저축은행	e-정기적금	2.50%
5	키움YES저축은행	SB특독 키워드림 정기적금	3.00%	청주저축은행	정기적금	2.50%
6	안양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	2.90%	한국투자저축은행	정기적금	2.50%
7	키움YES저축은행	키워드림 e-정기적금	2.90%	OSB저축은행	정기적금	2.50%
8	강원저축은행	정기적금	2.80%	페퍼저축은행	정기적금	2.42%
9	금화저축은행	e-행복드림정기적금	2.80%	구미저축은행	정기적금	2.40%
10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	2.80%	금화저축은행	정기적금	2.40%

적금)의 경우 첫 거래 또는 급여·연금·공과금 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또 우리카드 자동이체 실적이 충족되고 신규고객으로서 350만원 이상 사용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연 4.60%를 제공하는 OK저축은행 'OK VIP 적금상품'의 경우 방카슈랑스에 가입하고, 월 납입액이

49만원 이상일 경우 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자율은 우리웰치100여행적금 연 1.80%, OK VIP 적금상품 연 2.20%로 다른 적금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대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적립방법을 선택해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할 만하다.

적금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적립방식이 분리돼 있다. 정액적립식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급여생활자(salaried man)에게 좋은 반면, 자유적립식은 적립액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여액이 일정치 않거나, 보너스나 목돈

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적합하다.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적금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적금상품을 비교한 결과 은행은 세전 연 2.20%(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적금), 저축은행은 연 3.10%(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이었다. 2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0.90%포인트 더 높은 셈이다. 1금융권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저축은행 적금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2011~2012년 대형 저축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예금자들이 돈을 찾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적금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금융기관(은행·인터넷 전문은행·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융사별로 5000만원 단위로 분산해서 넣어두는 방법도 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1일 지점장' 근무를 통해 영업 현장과 소통 경영을 실시했다. 손 행장(왼쪽 네번 째)이 영업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

## 손태승 우리은행장, '1일 지점장' 현장소통

우리은행은 손태승 은행장이 서울 송파구 일선 영업점을 방문해 '1일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손 행장은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과 다과 시간을 갖고 영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직원들과 거래처를 방문해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 직원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손 행장은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며 "솔선수범하여 은행 발전을 위해 노력할테니 여러분도 저를 믿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 행장은 취임 시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은행 만들기' 일환으로 일선 현장을 돌며 소통경영에 나선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34개 영업본부를 방문해 행원, 지점장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 신한銀, '자산·부채 자동관리 시스템' 개발

국내은행 최초 1년간 자체개발 진행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신한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은 자산과 부채를 종합 관리해 금리·유동성 등 각종 리스크를 적정 범위내로 통제하면서 내재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과 산출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해외업체가 개발한 패키지를 사용해 왔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쌓아온 리스크 관리 역량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여 간 자체개발을 진행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리스크 관리의 핵심인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스템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로, 원하는 결과

를 얻어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데이터 입력의 효율성 향상 및 데이터 간 정합성 증대로 날로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시스템을 들여와 은행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데 소요되던 시간 및 비용 또한 절약이 가능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자체 ALM 시스템은 신한은행이 30여년간 쌓아온 ALM 지식 및 IT역량이 집대성되어 탄생한 결과물"이라며 "해외 점포에도 자체개발 ALM 시스템을 적용해 대한민국 금융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Advertorial Corner

## 씨티은행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1주년' 럭키 이벤트 진행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31일까지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출시 1주년을 맞아 '럭키(Luck-key)이벤트'를 진행한다.

럭키이벤트는 씨티모바일 앱을 통해 직장인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와 삼성 갤럭시 S9, 커피 기프트콘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대출을 신청하면 럭키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은 번거로운 증빙서류 없이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이 씨티모바일 앱에서 가능한 상품으로, 한국씨티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씨티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31일까지 대출을 받는 고객 모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신청자에게 적



용되는 금리인하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벤트는 PC를 통한 온라인 직장인신용대출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한 넉넉한 한도와 절차의 간편함 그리고 신청부터 입금까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으로 인해 이용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더 많은 고객들이 쉽고 빠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 및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www.citibank.co.kr)나 씨티모바일 앱 또는 씨티폰(1588-7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B국민은행 미얀마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

KB국민은행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외환센터에서 '미얀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의정부 외환센터는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일요일에 영업을 한다. KB국민은행은 미얀마커뮤니티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외환센터 내 2층에서 매주 일요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어교실은 교육정원을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경기도 전역에 근무하는 미얀마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그룹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마이크로 파이낸스 법인을 설립해 미얀마 현지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얀마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평일 은행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원곡동(안산), 오장동(서울), 김해(경남), 경안(경기 광주시), 의정부(경기 의정부시)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고 있다.